

# 이상주의도 늙는다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나 이 들어 생겨나는 지혜는 참 쓸쓸한 것이다. 현상긍정 혹은 변화에 대한 무감각과 냉소가 그것이다. 당장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나이 든 사람은 한 자락 빼고 지켜본다.

경험이 그를 영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엄청나 보이는 일이라도 시간의 위력 속에 묻혀버리더라는 경험.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그것 역시 곧 지나가 버릴 거라는 것을, 아무리 환호작약할 일이 생겨나도 그 기쁨의 시효 역시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나이 든 사람은 안다. 그러니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늙은이는 젊은 날에 이미 다 살아버린 사람이다. 그의 속과 거죽은 영양을 섭취하여 동작을 취하는 기계일 뿐 더 이상 세상을 움직이고 뒤바꾸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참 쓸쓸하고 쓸쓸한 일이다.

늘지 않은, 쓸쓸해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하루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청소년 집단이라고 부르지만 나이는 이십대들이고 최연장자인 좌장은 스물여섯 살의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 복학생이었다. 부산에 소재한 인디고 서원의 멤버가 그들이다. 책 토론회를 통한 인연으로 자리가 만들어져 그날 밤 맥주집의 말잔치가 길었다. 토론회 말미에 좌장 청년은 솔직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여러 나라에서 나이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은 대개 잘 해봐라, 열심히 하자 등의 격려와 동참의지를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 왜 우리 나라 어른들은 다르죠? 저희들의 뜻에 대해 의심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고, 잘 모르시면서 가르침만 주시

려고 들어요.”

왜 아니겠는가. 삼학년이 이학년에게, 이학년이 일학년에게 훈계를 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한국식 풍토다. 대선배급이거나 선생 위치가 되면 말할 것도 없다. ‘위’, 정확히 말해 더 오래 산 자는 ‘아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지혜로운 한 말씀을 내려야 지당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간다. 십년 더 살았다고 과연 십년 치 지혜가 축적되던가. 아니다. 다만 십년 분량의 영악한 처세술만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알게 된 인디고 서원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다. 10여 년 전, 아람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중·고생을 위한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인문적 사유의 함양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모임은 확대되어 서점을 열기에까지 이르렀다. 그 인문학 전문서점 이름이 인디고 서원이다. 그 곳은 단순히 책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현재까지 33회가 넘는 ‘주제와 변주’라는 강연토론회가 개최되는 곳이고, ‘인디고잉’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잡지가 발간되는 장소였다. 모임은 점차 에콜화되고 그룹화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학교, 대안교실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태 전 이들 그룹의 핵심들이 모여 놀라운 거사를 기획했다. 세계 여섯 개 대륙을 망라해 인류를 위한 창조적 실천을 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국제 도서전을 개최하지는 것이다. 과연 지난 8월 부산에서

여섯 개 대륙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더불어 '2008 인디고 유스 북 페어'는 성황리에 개최됐고, 그 만남의 여정을 기록한 '꿈을 살다'가 책으로 출간됐다. 바로 그 책 '꿈을 살다'의 독서 토론회를 통해 인디고 멤버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인디고 멤버들이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의 창조적 실천가들'이 인디고가 내건 기치인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 나선 인물들'이라는 표현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마 내 대학생 시절이었다면, 물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엄두 자체를 못 냈겠지만, 이 같은 모호한 지향성이 엄청난 내부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가라든지, 급진 환경운동가라든지, 교육운동가라거나 페미니스트라거나 무언가 카테고리를 형성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나 보다. 인디고의 젊은 친구들은 어떠한 범주화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난 면면을 보자.

인디고는 먼저 유럽의 프랑스를 찾아갔다. 올리비에 프뤼쇼라는 청년, 에코토이라는 자동차로 친구 셋과 더불어 지구 전체를 여행한 사람. 지속가능한 환경 프로젝트를 일생의 업으로 삼은 인물과의 인터뷰였다. 아울러 발레리 제나티라는 유태인과 아랍인의 화해를 지향점으로 하는 유태계 프랑스 작가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다음 여정은 스웨덴이었다. 하버드대학에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는' 유명한 강좌를 통해 알려진 인물로 현재는 스웨덴 웁살라대학에서 그 프로젝트 강의를 이어가는 학자 브라이언 파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파머 및 그와 뜻을 함께 하는 하버드의 이상주의자들이 꽤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아시아의 네팔이다. 산토시 샤흐라는 네팔의 엘리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미국유학을 통해 오히려 척박한 조국 네팔의 현실에 눈뜨게 되었고 그것을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청소년 포럼을 열고 잡지를 발간하고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물이다.

인디고의 여정은 남미로, 아프리카로, 호주로 계속 이어진다. 한 해 총격사건으로 2만여명이 살해된다는 콜롬비아 빈민가에서 '꿈의 학교'라는 현대무용센터를 열어 빈민 청소년에게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알바레 레스트레포를 만났고, 문맹률 높은 남아공에서 무료 과학대안교과서를 집필해 배포하는 마크 호너를, 환경윤리에 대해 이론과 실천의 깊이를 더해가는 호주의 피터 싱어 교수와의 만

남도 기록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부산의 북페어에 초대되어 교류와 연대의 마당을 열었던 것이다.

인디고들이 만난 '창조적 실천가들'의 행적은 곧장 인디고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의지는 곧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점화될 것 같았다. 한국이라는 영토적 관점에 매이지 않을 뿐더러 이상의 범위와 지향을 마음껏 확장해 뜻을 펴는 그들에게 부러움을 넘어서 어떤 위축감이 들기까지 했다. 나의 감회는 이 지점에서 그쳐야만 옳았다.

하지만 도무지 쓸쓸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이 기분은 왜일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뒤숭숭하다. 신규주택 500만 호 건설이라는 초특급 부양책으로 이 같은 불황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안이 병병해지는 당혹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상주의자들의 헌신과 포부가 가득하여 멀지않아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한다는 경험적 소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쓸쓸한 것인지 모르겠다.

요즘 열독하고 있는 책이 있다. 프루동 같은 급진 아나키스트들이 '정당한' 폭력을 통한 국가 해체를 제창하고 있던 시절에 같은 아나키스트이면서도 폭력적 방법에 결사반대한 톨스토이의 저작물이다. 프루동이든 톨스토이가든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을 불행으로 내모는 원천적 악이라는 인식은 같다. 사회주의라는 이상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후 톨스토이나 버트런드 러셀 같은 '온건한' 이상주의자들의 신념에 끌리면서도 한편으로 냉소와 무관심으로 치달는 늙은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인디고의 청년들은 이상의 추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별별 꼴을 다본 끝에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통화량 조절이라는 마술로 다시 한 번 제3국들의 부를 굶어모으는 현실 앞에서 이상이 대체 무슨 소용이나 싶은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고 이제 나의 이상주의는 늙었다. ㉔



글쓰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